

**경복궁에 표현된 붉은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ds of Kyungbok Palace

정유나* / Jeong, Yoo-Na

Abstract

Koreans have regarded the red as a major color from old times. The red is a traditional color to have symbols of high position, national foundation and especially royalty. So, we can see the reds in the palace for kings very mu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the features of color red in the Kyungbok palace. The color was analyzed by two categories-architectural buildings · structures and ornamental painted patterns.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eokganju(similar to terra rossa) and toyugsaeak(light seokganju) are found main colors in architectural space, while seokganju has a linear effect and toyuk has a facial effect.
2. Yugsaeak(similar to light vermilion) and Jangdan(similar to orange) are found main colors in ornamental painted patterns. These colors are more vivid and brighter than those for architectural space.
3. As for two-color combination, reds and blues(including greens) are found major combination both of architectural space and ornamental patterns. And reds and white are the following combination, which gives an bright image by white.
4. As for three-color combination, red-white-black combination of pediment and red-blue-white combination of openings are found very popular in architectural space, while red-blue-yellow combination is most popular in ornamental patterns.

The reds are found dominant color of both architectural space and ornamental patterns in the Kyungbok palace. The color design as shown in the Kyungbok palace can be considered as the feature of traditional color design.

키워드 : 전통색채, 붉은색, 경복궁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한국 전통사회에서 붉은색은 매우 의미있는 색이었다.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하는 것을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청이라고도 불렀다. 즉, 붉은 칠이 모든 색칠을 대표하였던 것이다. 또한, 붉은색은 지난 이천년간 왕과 관련된 공간에서 사용되었으며 한국인들에게 붉은색의 이미지는 높은 지위, 기쁨, 상서로운 일들을 상징하는 색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한편, 단청 문양에서 여러 색들을 배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색이 장단 혹은 옥색이며 가장 나중에 사용되는 색이 석간주인 것이 기본원리이다. 즉, 밝은

붉은색에서 시작하여 어두운 붉은색으로 마감하는 데, 붉은색이 색의 시작이요 마침이 된 것이다. 한가지 색만을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붉은색만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전통 사회의 대표색인 붉은색이 건축공간에서-건축물의 부재와 단청문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색감과 배색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색채에 대한 접근은 회화, 공예, 의상, 자수, 단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중 단청은 건축공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몇 가지 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받기 어렵다.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오랜 시간동안 동일한 문양에 동일한 색채가 적용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며 곧 한민족의 색채의식, 미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전통색채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의 색채의식을 파악하는 것이며, 한국적 정체성을 띤 색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초지

* 이사,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공학박사

** 이 논문은 2001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것임.

색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된 붉은색의 특성과 배색 유형은 과거를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현대와 미래의 발전적인 배색을 만들기 위한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범위 및 방법

실용공간에서 붉은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건물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또 붉은색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궁궐건축,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의 정궁으로서 가장 격식이 높은 경복궁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경복궁은 태조 때 영건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그 후 300년간 재건되지 못하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5년부터 다시 중건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복원된 침전이나 동궁전 등은 1888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조선고적도보 등 각종 고문헌과 전문가의 엄격한 고증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완전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역사관련 연구의 공통된 한계이다.)

색채조사는 경복궁의 모든 전각들과 행각, 궐문, 구조물들을 대상으로 5차례(7월 31일, 8월 2일, 3일, 7일, 16일) 시행하였다. 태원전 권역이나 보수 중인 근정전과 내부 공간을 관찰할 수 없는 일부 전각들은 출판된 단행본이나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조사된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전각 30여 채, 10여 개의 당채, 문종류 30여 개, 행각 10여종이다. 사용색 분석은 현지 색채 조사에서 연구자가 촬영한 650여 점의 사진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색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수시로 답사하여 확인하였다.

붉은색에 대한 분석은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건축 구조 요소들-지붕, 기둥, 도리, 보, 담, 굴뚝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재에 사용된 여러 단청 문양의 단위들-휘문양, 색직휘, 꽃문양, 초엽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붉은색에 대한 전반적인 특성을 추출하고자 예외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나 소수의 것, 회화적인 요소가 강한 것, 모든 색을 다 사용하여 특별히 붉은색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것 등은 제외하였다.

사용색의 기술은 측색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보다 색명으로 하였다. 이것이 오히려 퇴색이나 변색에 따른 색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붉은색은 단청의 칠 뿐만 아니라 전(塼)돌과 같은 재료에서도 사용되는데, 이 때에도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명을 선정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매우 어두운 회색에 해당하는 기와나 전들은 편의상 검은색으로 하였고, 사용

색의 면적과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될 필요가 매우 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예 : 먹분선)들은 생략하였다.

사용색의 배색에 대한 분석은 오색계열(적, 청, 황, 백, 흑)에 의거하였고, 색 계열 하에 구체적인 사용색을 기입하였다. 2빛이나 3빛으로 사용된 색은 초빛을 대표명으로 기입하고 2 혹은 3이라는 숫자를 적었다. 필몰이 고려된 색명은 배색에서 상대적으로 면적 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이다.

2. 한국의 붉은색과 경복궁에 대한 일반 고찰

2.1. 한국의 붉은색

앞서 기술한 것처럼 붉은색은 한국의 대표색 중의 하나이다. 붉은색에 대한 의미는 매우 오래되었고,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작, 밝음, 고귀함, 남쪽, 벽사(辟邪)²⁾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의 건국신화에서 붉은색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붉은색이 국가, 왕권, 궁궐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붉다'의 어원과 '밝다'의 어원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붉은색은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건국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탄생에서 나타나는 붉은 보자기나, 그의 왕비 허황옥이 타고 온 배의 붉은 돛, 붉은 기에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시조나 신라의 시조 이름에서도 역시 이러한 의미가 반영되고 있다. 즉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58-18, B.C. 재위 37-19, B.C.)의 이름은 주몽으로 '붉을 주(朱)'가 사용되었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혁(赫)자는 '붉을 적'이 두 번 사용된 한자로 그만큼 붉음이 강조된 글자이었다. 고조선의 나라 이름에서 이런 이미지는 더욱 승화되어 나타난다. 조선(朝鮮)의 이름은 아침의 밝고, 깨끗하고 곱고, 맑고, 환한 색채 이미지를 반영한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배달민족이라고 불리었는데 배달이라는 말은 '붉' 과 '달'의 합성어로 한민족이 밝다, 붉다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붉은색은 하늘로부터 태함을 입은 왕을 상징하므로 자연 위계가 높은 것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신하들도 정 1품부터 3품까지는 홍색 관복을 입었고, 정 4품부터 6품까지는 청색 관복을 입었다. 또, 문과나 무과에 합격하면 붉은색 합격증을 받았고, 생원이나 진사에 합격하면 흰색의 합격증을 받았다고 한다.

한민족의 붉은색에 대한 뿌리깊은 색채의식은 오랜 기간의 법적 규제와도 관계가 있다. 신라시대에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 이외에는 건물에 채색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에 세종께서 궁궐 외의 공사옥우(公私屋宇)에는 주칠(朱漆)의 사용을 금하라고 하였고 이를 위반한 가옥은 참의로 규리하였

1) 사진의 내용은 사정전 46, 만춘전 37, 천추전 38, 강녕전 45, 교태전 45, 자경전 48, 자선당 42, 비현각 47, 수정전을 비롯한 일반 전각 53, 광화문을 비롯한 문루 121, 행각 80, 경회루를 비롯한 누각 31, 기타 41이며 본고에 게재된 9개의 사진은 연구자가 촬영한 것임.

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pp.385-388

다. 나아가 성종 대의 경국대전에서는 이것을 위반한 자를 장형(杖刑) 80대에 처한다고 하여 매우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 초의 규제 내용이 조선말 고종대의 대전회통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대전회통에는 분교 사찰을 제외하고 진채(眞彩)를 사용한 자에게 장(杖) 80대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즉, 왕과 권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란 좁은 의미로는 빨강과 관련된 색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온갖 색들로 장식한 채색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본고 역시 붉은색의 색감 뿐 아니라 붉은색을 중심으로 한 배색 유형까지 그 분석 범위로 하였다.

2.2.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

현재 경복궁은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전형적인 법궁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경복궁은 정전인 근정전과 편전인 사정전을 중심으로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행하는 치조 공간과 조정의 관료들이 집무하는 수많은 관청들이 자리잡고 있는 외조 공간, 그리고 강녕전, 교태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주구역으로서의 침전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궁궐의 배치개념은 공공성과 사적인 성격에 따라 외조->치조->연조(침전)의 순서로 깊이 있게 계획된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경복궁은 태조 4년(1395)에 완성되었으나, 법궁으로서의 체제를 완벽히 갖춘 것은 세종대³⁾이었다. 임진왜란(1592) 때 소실되었던 것을 고종이 중건할 때는 원래의 모습보다 더 규모가 크게 하였다. 고종 2년(1865)에 시작된 경복궁 중건사업은 조선말의 역사적 혼란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어느 궁궐보다도 화려하게 만들어졌으나 명성왕후 시해 사건으로 고종이 경운궁으로 환어하면서 결국 1897년 폐궁화되었다. 그 후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면서 그들은 강녕전, 교태전, 흥례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주요한 많은 전각들을 방패하고, 헐어 버리고, 위치를 변경하는 등 온갖 자해를 행함으로써 경복궁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해방 후 경복궁은 10여 개의 동만 남은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이에 1984년부터 정부에서는 조선 왕궁의 복원 정화 및 관리 개선의 기본 방침 추진계획을 세우고 1991년 경복궁 복원을 시작하였다. 1단계로 왕의 침전인 강녕전과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을 비롯한 연생전, 경성전 등 많은 침전 전각들을 복원하였고, 2단계에 비현각, 자선당의 동궁전 일곽을 복원하였다. 현재 3단계 사업인 빈전(태원전) 지역 복원이 진행 중이다. 4단계 사업은 광화문과 근정문 사이에 있는 흥례문 지역 일대를 복원하는 것인데, 흥례문과 행각은 이미 2002년 현

재 완공된 상태이다. 마지막 5단계 사업은 광화문과 동·서 십자각 등을 복원하는 것이다.

현재 경복궁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복궁은 남쪽의 광화문, 동쪽의 건춘문, 서쪽의 영추문, 북쪽의 신문문으로 둘러싸여 있다(광화문 동쪽의 동십자각은 도로로 분리되어 있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흥례문이 나오고 영제교를 건너면 서쪽에 유화문과 별기청이 있고 북으로 근정문을 지나면 정전인 근정전에 이르게 된다. 근정전을 중심으로 사방에 행각이 둘러 있다. 근정문 북쪽에는 사정문이 있는데 이 곳을 들어서면 사정전과 좌우로 천추전, 만춘전이 있고 사방을 둘러싸는 행각이 있으며 행각 내에 협선당, 용신당이 있다. 사정전 서쪽 행각 너머로 수정전이 있다. 사정전 북쪽으로는 향요문이 있으며 이 곳을 지나면 강녕전에 이르게 된다. 왕의 침전인 강녕전 좌우에는 경성전, 연생전, 응지당, 연길당이 위치하고 이러한 전각들을 둘러싸는 행각이 있고, 행각 내에 흥안당, 계광당, 연소당 등이 있다. 강녕전 북쪽에 있는 양의문을 지나면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이 나오고 교태전 동쪽에 원길현, 서쪽에 함홍각이 연이어 있고 행각이 둘러 있으며, 행각 내에 승순당, 내순당, 보선당, 체인당이 있다. 교태전 뒤로 건순각과 후원인 아미산이 있다.

강녕전 서쪽으로 경회루와의 사이에 흠경각과 함원전이 남북으로 놓여 있고 역시 행각이 남북으로 둘러있고 행각 서쪽으로 경회루가 있다. 경회루 뒤는 태원전 일곽이며 신문문 앞으로 동쪽에 집옥재, 협길당, 팔우정이 위치하였다.

근정전의 회랑 동쪽 문으로 나오면 북쪽으로 동궁인 비현각과 자선당이 보이고, 그 뒤로 대비전인 자경전, 청연루, 협경당이 보인다. 자경전의 위치는 아미산의 동편이다. 아미산으로부터 북쪽으로 떨어진 곳에 집경당과 함화당이 보수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며 고종 대의 여러 행각들은 철거된 채 건물만 놓여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뒤로 향원정이 연못 위에 세워져 있고, 연못을 건너가는 난간이 원래의 모습과 반대로 남쪽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자경전 동북쪽에 제수합이라는 작은 건물이 똑 떨어져,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가는 길 옆으로 있다. 경복궁의 복원도형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얼마나 경복궁이 일제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경복궁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19세기말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게 되었다. 특히 교태전같은 경우, 일제가 1917년 창덕궁 대조전 등 여러 내전들이 화재를 입자 이를 복원한다는 미명 하에 경복궁의 강녕전, 교태전 등 주요 전각들을 철거하여 그 부재로 대조전 지역의 건물들을 복구하였었다. 대조전은 교태전 부재를 많이 사용하여 1920년 단청까지 마무리하여 완공되었는데, 대청 우측 방에는 천정을 낮게 내리고 도배를 하여, 천정 위쪽에 있는 창방, 장화반, 도리, 대량 등의 부재에는 재단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1888년 교

3) 세종은 8년(1427)에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환어하여 근정전을 수리하고, 9년에는 동궁인 자선당을 창건, 10년에는 건춘문을 수리하고, 11년(1430)에는 경회루와 사정전을 중수하였다. 세종 31년(1450)에는 강녕전, 연생전, 경성전,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 등을 갖추고 뒤쪽 후궁 안에 小宮로 함원전, 교태전, 자미당, 인지당, 종회당, 송백당, 청연루 등을 건립하였다.

태전 단청이 오색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좌측 외부의 행각과 접속되는 처마에는 4개의 부연이 [조선고적도보]에서 볼 수 있는 문양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었다⁴⁾고 한다. 그러므로 경복궁의 모습은 19세기말 조선의 건축과 색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3. 경복궁 공간 구성 요소에 나타난 붉은색의 표현 특성

전통건축을 외부에서 보면 지붕과 그 아래 창호·벽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1:1이라고 느껴질 만큼 크고 깊은 지붕이 그 아래의 거주 공간을 감싸주고 있다. 지붕은 궁궐의 일부 전각에서 청기와를 사용한 예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매우 어두운 회색 기와를 사용하고 있고, 지붕 밑의 처마는 부연, 연목, 도리, 공포, 창방 등에서 화려한 형태와 색채를 보여주고 있다.

공포 부분 아래로 입면으로 볼 때 지붕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호·벽체가 있다. 그리고 궁궐건축에서 내부공간은 주요 정전, 편전 같은 전각인 경우 내부가 외부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침전 같은 전각인 경우에는 대청부분과 온돌방 부분으로 나뉘어 대청부분은 마루바닥에 우물천장, 온돌방 부분은 바닥, 벽, 천장을 도배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에서 나타나는 주요 구성 요소는 내부의 대들보와 우물천장이라 할 수 있다.

건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붉은색은 지붕에서는 옆면에 보이는 박공, 합각이며, 도리, 보, 내부 대들보, 창방 같은 수평 구조 부재에서는 계풍에서 찾을 수 있었고, 창호·벽체에서는 기둥, 인방, 벽선, 벽체 등 녹색의 창호나 머름착고를 제외한 부분이 거의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밖에 건물 주위의 난간과 계단에서도 붉은색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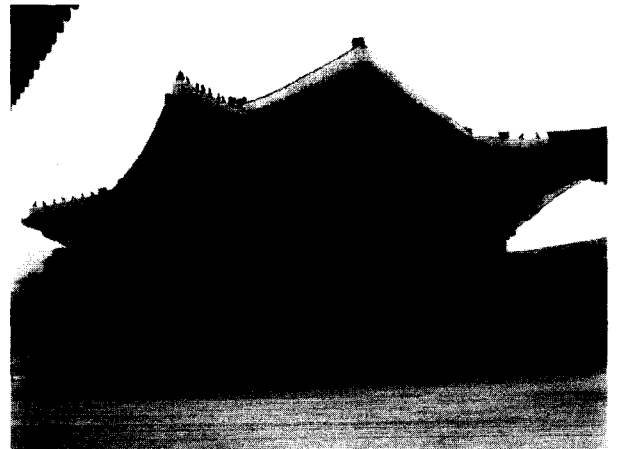
채색을 할 수 없었던 일반 주택에서는 건축물의 색채가 어두운 회색의 지붕과 흰색의 회벽, 혹은 흰색의 창호지와 목재 창살로 인해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명도대비 효과가 나타났지만, 궁궐과 같이 채색을 하였던 건물에서는 멀리서 보면 지붕의 어두운 회색, 합각과 기둥과 벽면의 붉은색, 창살의 녹색, 그사이에 보이는 창호지의 흰색으로 4색 배색조화를 보게 된다.

한편,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가까운 곳에 굴뚝이 위치하고, 그 건물을 둘러싸는 외부공간-마당이 펼쳐진다. 한국의 전통건축은 완전히 외부공간이라 할 수 없는 반 내부공간의 성격으로서의 전용마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마당을 둘러싸는 행각이나 담으로 하나의 공간이 완결된다고 하겠다. 경복궁의 굴뚝과 담, 문, 행각에서도 붉은색이 많이 발견되었다. 각 구성요

소 별로 사용된 붉은색의 종류와 배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박공·합각 부분

광화문, 신문문, 홍례문 같은 문들은 우진각 지붕인데 반해, 근정전, 사정전, 교태전, 강녕전 등의 전각들은 모두 팔작지붕이다. 팔작지붕은 측면에 '사'자의 박공과 삼각형의 합각부분이 나타나는 데, 박공은 석간주색으로 칠해져 있고 합각부분은 붉은색 전돌 혹은 석간주색으로 칠해진 판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합각부분의 재료는 전돌과 널판으로 구분되며 정전, 편전같은 곳에서는 합각벽판을 사용하였고, 침전에서는 전돌을 사용하였다. 두 경우 재료는 다르지만 붉은색을 사용하려고 했던 의도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지붕의 규모가 큰 경회루는 합각부분이 매우 커서 멀리서보면 석간주색의 지붕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 풍판을 사용한 경우는 박공, 풍판 모두 석간주색만 나타나고<사진 1>, 전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박공은 석간주, 합각 부분은 주황 전돌, 검은색 전돌(가운데 문양에 사용), 흰색 줄눈의 3색 배색이 나타났다.<사진 2>



<사진 1> 합각부분에 풍판을 사용한 경우 박공과 풍판에서 모두 석간주색을 사용하였다. 또, 일반적으로 기둥은 석간주색, 창호에는 녹색을 사용하였다(사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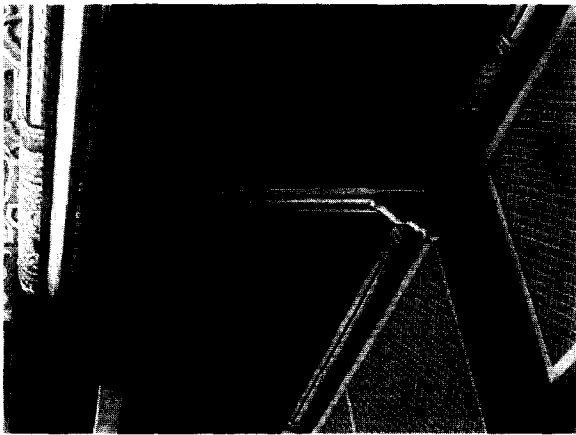
<사진 2> 합각부분에 전돌을 사용한 경우 박공만 석간주로 칠하고, 가운데 검은 전돌로 문양을 두었으며 바탕은 주황색 전돌과 흰색 줄눈으로 배색하였다(강녕전).

4)대원고건축연구소조사편찬, 경복궁 침전 지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p.262

3.2. 도리·창방·보

도리와 보는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은 같지만 설치된 방향이 다른 것으로 도리는 가로방향, 창방은 세로방향, 단방은 단방향이다. 내부의 대들보는 외벽처럼 기둥에 의해 단청 문양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 부재 그대로 채색되어 다른 부재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화려하게 채색되었다. 창방은 기둥 바로 위에 설치되는 수평부재이며, 공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받쳐 주는 평방이 창방 위에 놓이며, 도리는 처마 바로 아래 놓인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수평구조 부재들은 양쪽에 머리초를 두고 가운데 남겨지는 계풍 부분을 녹색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경북궁에서는 강녕전, 교태전, 자경전, 연생전, 양의문 등에서 계풍을 오렌지빛 장단으로 채우고 상하 갓변에 양록 색긋기로 처리하였다.<사진 3>



<사진 3> 수평부재의 가운데 부분인 계풍에 오렌지빛 장단으로 채색하고 상하 갓변에 양록 색긋기를 하였다(강녕전).



<사진 4> 주요 침전의 내부 대들보의 계풍에는 장단 바탕의 양록색 금문이나 양청 바탕에 육색 금문을 두었다(자선당).

한편, 강녕전, 교태전, 경성전, 연길당, 자선당 등의 내부 대들보 계풍에는 외부처럼 장단색을 강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금문(錦紋)으로 하였는데-장단 바탕에 양록으로, 양청 바탕에 육색으로 만자(卍字) 무늬를 놓았다-, 두 개의 반대색이 서로 혼

합되어 색채의 중간혼합같은 효과가 생겼다. 장단 바탕의 양록문은 굴색처럼, 양청바탕의 육색문은 보라색처럼 보였다. 이러한 2색의 배색은 경복궁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경운궁(덕수궁)의 침전 함녕전의 내부 도리와 창방의 계풍에서 보이는 배색과 유사하였다. <사진 4>

3.3. 기둥·인방·벽선

창호 및 광창을 중심으로 수직적 기둥과 벽선, 수평적 상·하인방은 모두 석간주 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이것은 마치 붉은 사각형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창살은 녹색인데 흰색 창호지가 배경이 되어 녹색을 밝게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행각에서는 녹색 창살이 개방되어 있고, 창호지가 붙어있지 않았다. 창호 아래 부분에 머름이 있는 경우, 머름착고의 색은 녹색이었다. 즉, 창살이나 머름착고는 굵게 그은 붉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개별 부재로 보면 모두 석간주색이나, 창호·벽체 전체 입면으로 보면 기둥의 석간주, 창살과 광창과 머름의 너록, 창호지의 흰색으로 3색 배색이 된다.<사진 1>참조

3.4. 대문·벽체·창호

대문은 석간주와 너록으로 양분되었다. 광화문, 건춘문, 영추문, 흥례문, 근정문, 선정문 등의 큰 규모의 대문부터 자경전에 있는 작은 일각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문은 판문으로 석간주 색이 대문 전체에 칠해져 있다. 그러나 자경전의 만세문, 교태전의 만통문, 재성문, 동궁전의 이극문, 이모문, 중광문 등은 너록으로 칠해져 있다. 너록색 대문은 석간주 대문보다 위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벽체는 주로 행각들의 입면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 전각들에서도 창호를 제외한 곳에서는 바름벽을 하였다. 바름벽의 붉은색은 토유색이다. 석간주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토유색의 바름벽과는 채도대비와 명도대비가 발생하면서 선과 면의 대비 효과도 보여준다. 또한, 토유색 바름벽에 주위로 먹긋기를 하여 바름벽의 형태를 강조하였다.

창호는 모든 건물에서 창틀은 석간주이고 창살은 너록이었다.

3.5. 담·굴뚝

담은 일반적으로 밝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나, 자경전, 교태전 일곽에서 발견되는 담은 주황색 전돌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놓은 꽃담이다. 자경전 담에는 만수(萬壽)의 문자와 격자문, 육각문, 오얏꽃 등이 정교하게 장식되었고, 외벽에는 글자문과 함께, 각종 식물 문양-매화, 모란, 국화, 대나무, 연꽃 등-을 사용하였다. 줄눈으로 사용된 모르타르의 흰색은 멀리서보면 베졸드의 효과를 일으켜 담 전체를 밝은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런데, 종종 검은 전돌로 문양의 외곽을 두른 것도 있다.

또한 외부공간의 아름다운 조형물로 처리한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 아미산의 굴뚝들, 교태전 보선당의 굴뚝에서 보이는 붉은색은 꽃담을 형성하고 있는 전돌과 같은 주황색이다.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과 아미산에 있는 굴뚝은 주황색 전돌만을 사용하였고, 교태전 뒤 건순각 부근의 굴뚝은 주황색 전돌과 흰색의 배색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담과 굴뚝에서의 붉은색은 단색으로는 주황색, 2색 배색으로는 붉은색과 흰색, 3색 배색으로는 붉은색, 흰색, 검은색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5>



<사진 5> 전통 공간의 꽃담과 굴뚝은 주황색 전돌로만 이루어진 것과 흰색 줄눈으로 배색한 것, 검은색과 주황색 전돌과 흰색 줄눈으로 배색한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주황색과 흰색의 배색이 보인다(자경전).

3.6. 난간·계단

경희루나 향원정과 같은 누각건물에서, 그리고 교태전, 강녕전, 건순각에서 또 흥례문, 근정문같은 2층 꺾문에 난간이 사용되었다. 난간은 마치 건물의 창호·벽체 일면의 축소판과 같은 배색이 적용되었다. 수직 요소인 난간기둥과 수평요소인 띠장, 두겹대 등은 모두 석간주색이고, 띠장과 난간 동자기둥 사이에 있는 궁판이나 아자살같은 것은 모두 뇌록이었다. 난간은 궁창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양한 문양이나 살로 장식하였다. 돌란대를 받치고 있는 하엽은 녹색이나 녹색 2빛이었다. 그러므로 난간에서는 석간주와 녹색의 2색 배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계단은 난간의 하부, 즉 계단의 옆판과 디딤판, 계단 밑판을 모두 석간주로 칠하였다.

<표 1> 공간 구성 요소에 나타난 붉은색의 표현 양상

구성 요소	사 용 색		
	적색 계열	2 색계열 배색	3 색계열 배색
박공·합각	석간주		적(석간주-주황)-백-흑
도리·창방·보		적(장단)-청(양록), 2 적(장단)-청(양록) 적(육색)-청(양청)	
기둥·인방·벽선	석간주		
대문·벽체·창호	석간주, 토육색	적(석간주)-청(뇌록)	*창호·벽체 일면: 적(석간주)-청(뇌록)-백
담·굴뚝	주황	적(주황) -백	적(주황) -백 -흑
난간·계단	석간주	적(석간주)-청(뇌록,녹)	

4. 경복궁 단청문양에 나타난 붉은색의 표현 특성

전통 건축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은 창호 위에 가로로 놓인 창방과 평방의 머리초 문양이다. 그리고 눈을 들어 상부를 보면 날아갈 듯한 형태의 공포 부재들을 더욱 강조하는 배의 색긋기, 덩굴초문과 도리의 머리초 문양이 보이고, 그 위로 연목의 머리초, 부연의 머리초, 부연개판의 돌레방석문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건축물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부연과 부연 사이에 속으로 작은 문양들이 매우 화려한 색채와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구리대초라고 하는데, 전통건축에 사용된 단청 문양들이 구성구석 정교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요소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창방, 평방, 도리의 머리초와 공포부재의 문양들 이외에 대들보가 보인다. 대들보의 문양은 외부보다 훨씬 크고 장엄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천장의 화려함에 압도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물 정(井)자로 나누어진 격자관에 동일한 패턴이 그려져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격자판들 사이에 수직, 수평으로 이어져 우물반자의 틀을 만들어 주는 반자대의 교차 부분에 있는 꽃문양이 천장의 화려함을 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격자관은 반자판이라고 하는데, 전각의 기능에 따라 쌍용, 쌍봉, 길상문자, 연꽃 등이 그려졌다. 쌍용이나 쌍봉같은 것은 별화처럼 거의 사실적으로 표현되며, 매우 많은 색들이 적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붉은색이 경복궁의 단청문양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위에 기술한 내용에서 공통된 기본 단위 문양(들)을 붉은색과 연관된 것에 한하여 추출하였는데, 그것은 휘문양, 색직휘(긋기 포함), 꽃문양(연화, 파련화, 주화, 쇠코화 등), 초엽문, 딱지(향아리 포함)이었다.

4.1. 휘문양

휘는 단청의 배색특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 수평 구조부재인 창방, 도리, 보의 머리초와 처마부재인 연목과 부연의 머리초에서, 그리고 내부 천장 종다라니초에서 사용되었으며 부재의 크기에 따라 1휘부터 6휘까지 보인다. 휘의 색대는 원래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경복궁에서 사용된 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강녕전, 경성전의 내부 대들보같은 경우에는 3빛을 사용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2빛을 사용하였다. 2빛으로

5) 보통 수평구조부재에서 사용되는 연화머리초는 먹당기-황·녹실- 직휘(색직휘, 금직휘)-녹·황실-(나근동-속곶팽이-연화-석류동-번엽(번화)-곶팽이-향아리)-공터-녹·황실-몇가지 색의 인휘(2빛)-공터-녹·황실-먹당기로 구성되며, 부연개판의 돌레방석문은 주화-양록곶팽이-삼색향아리-하엽공터-녹·황실-먹당기로 구성된다. 연화머리초나 돌레방석문같은 단청문양은 황·녹실, 직휘, 연화, 번화, 인휘 등과 같은 기본 단위 문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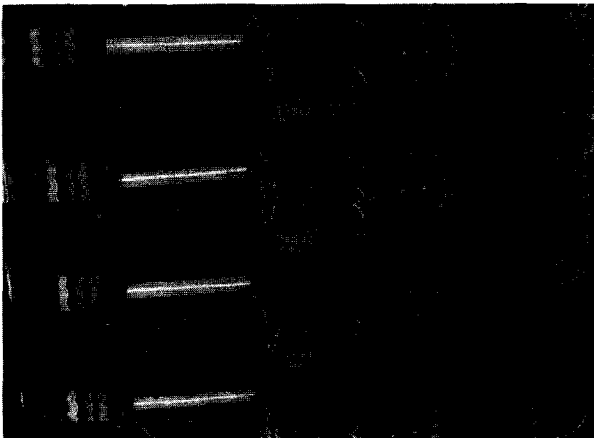
사용한 붉은색 계열의 색은 육색 2빛(육색-주홍)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 외, 장단 2빛(장단-주홍, 강녕전 도리), 장단육색 2빛(장단육색-장단, 강녕전 내부 보)은 6회의 경우에 나타났다. 신통 배색에서 황색의 2빛이 같은 계열의 저명도 색을 사용하지 않고 적색계열의 색, 장단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1회는 대부분 전각의 내부 천장 종다라니초에서 사용되었고 광화문의 협간 도리나 동정문의 퇴랑처럼 채색 단위가 작은 경우에 발견되었다. 사용색은 광화문의 장단을 제외하고 대부분 육색이었다.

2회는 경성전, 동십자각, 만춘전, 천추전 등에서 사용되었다.

머리초 문양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도 부재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휘의 수가 달라진다. 사용색은 육색-삼청, 2빛이었다.

3회는 주요 전각이 아닌 행각이나 대문간의 창방, 도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또, 주요 전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의 연목이나 부연에서 많이 사용된 휘이다. 3회는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육색-삼청-황의 배색<사진 6>과 육색-삼청-석간주의 배색이다. 전자의 배색이 경복궁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



<사진 6> 3회에 사용된 색의 순서는 육색-삼청-황과 육색-삼청-석간주의 2개 유형이 주로 나타났는데, 사진에서와 같은 전자의 경우가 경복궁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자선당).



<사진 7> 주요 전각의 창방, 평방에서 사용된 5회(인휘, 2빛)는 육색-삼청-황-녹색-석간주의 순서로 배색하였다(사정전).

타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청원리에 의하면 석간주색으로 마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에 중건된 경운궁에서도 동일한 배색이 발견되는 바, 이것은 조선시대 말의 궁궐건축에 화사함을 더하기 위해 적용된 배색으로 판단된다.

휘에서는 색의 사용순서가 중요하므로 배색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4회는 비현각, 자선당 등의 매우 많은 전각들의 수평부재와 강녕전, 교태전과 같이 규모가 큰 전각의 부연에서 늘휘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사용색은 육색-삼청-황-석간주이었다. 그런데, 근정전의 4회의 순서는 황-녹색-육색-삼청으로 예외적이었다.

5회는 사정전, 자경전, 교태전, 근정문, 흥례문과 같은 주요 전각의 창방, 도리와 같은 구조부재에서 나타나며 사용색은 육색-삼청-황-녹색-석간주이었다.<사진 7> 또, 경성전, 연길당, 응지당, 흥경각 내부 대들보에서 3빛을 사용하였다.

6회는 강녕전 창방, 내부 대들보나 교태전의 내부 대들보에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전각의 구조 부재에서 사용되었다. 강녕전 도리와 창방에서는 휘의 순서가 육색-삼청-장단-양록-황-석간주(2빛)이었고, 강녕전 대들보에서는 장단육색-삼청-육색-녹-황-석간주(3빛), 교태전 대들보에서는 장단육색-삼청-황-녹-육색-석간주(2빛)로 모두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단청의 휘 순서대로 채색한 것은 교태전이었다. 6회는 드문 경우로 일반적인 경향에서 제외하였다.

4.2. 색휘 · 색직휘 · 색긋기 · 색실

색직휘는 직선 색대로 주로 머리초 문양의 시작 부분에 사용되며, 색긋기는 부재의 아래에 다소 길게 긋는 것을 지칭한다. 그러나 명칭은 달라도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색긋기는 첨차, 앙서, 수서, 익공, 부연, 추녀, 사래, 보, 장여 같은 부재의 배와 종다라니의 계봉에 육색 3빛으로 채색되었다. 비록 일부 규모가 큰 교태전이나 사정전, 수정전같은 전각의 추녀와 사래에서 4빛이 보였고, 또 영추문의 부연에서는 2빛도 발견되었지만 경복궁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색긋기에서 나타난 육색 3빛은 가운데 분선을 긋고 대칭으로 초빛, 2빛, 3빛색을 칠하였다. 즉, 가운데 백색선을 중심으로 육색-주홍-다자 순이었다.<사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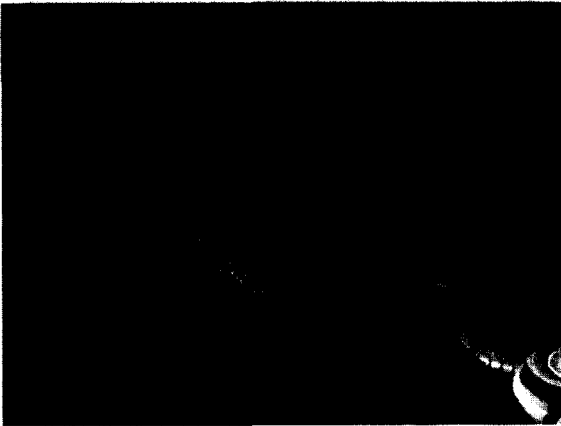
경복궁에서 발견되는 색직휘는 주요 수평구조부재의 머리초 문양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타나며, 주로 장단 2빛이 사용되었다. 근정전처럼 장단만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장단 색직휘는 주요 전각들에서만 사용되었고, 일반 전각들은 녹색 직휘를 사용하였다. 행각 중에서도 정전 주위의 행각에서는 장단실⁶⁾이 사용된 반면, 편전인 사정전의 행각만 하더라도 장단실이 사용되지 않았다. 물론 침전의 행각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붉

6) 색대의 폭이 좁을 때 가는 '실'로 기술.

은색의 위계가 녹색보다 높기 때문이다. 장단 2빛은 색긋기와 같은 형식으로 백색 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 즉, 백색 선-장단-주홍 순이다.

색실은 또한 머리초 문양 마무리에도 사용되었다. 보통은 휘 문양을 마무리하는 쇠침 다음에 녹.황실-떡당기로 처리하는데,

강녕전 등 주요 전각에서는 녹.육색(2빛).황실-떡당기로 육색실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사진 8> 색긋기의 육색 3빛은 가운데 흰색 분선을 두고 좌우 대칭으로 육색-주홍-다지의 순으로 점점 더 진하게 채색하였다(사정전).

4.3. 꽃문양(연화, 파련화, 주화, 쇠코화)

연화는 모든 부재의 머리초 문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이다. 연화는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형과 옆에서 바라본 입면형이 있는데, 서까래의 부리처럼 동그란 부재에서는 평면형을 사용하였고, 창방, 평방, 도리, 보와 같은 긴 부재에서는 입면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화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이름을 붙였는데, 연화 꽃잎의 끝이 버선 모양처럼 변화를 준 것을 파련화라 한다. 여기서는 문양의 형태보다 사용색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일반적 형태의 연화와 파련화를 모두 연화로 포함시켰다.

한국 단청 특징 중의 하나가 사물의 색을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전통 철학에 의거하여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구름의 색을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하양 등으로 오색개념에 따라 칠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화려한 분위기를,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색을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이런 면이 남아있어 경축 행사시에 두 세 가지 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강한 인상을 주기보다는 여러 다채로운 색들을 사용하여 알록달록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단청에서는 색을 사용할 때 사물의 본래 색보다는 철학에 의한 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화 역시 본래의 색은 분홍이지만 고대에서는 녹색 연화⁷⁾도 사용되었고 주화 또한 붉은색으로부터 명칭이

유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러한 꽃모양을 지칭하는 것이 되어 사용색에 따라 청색주화, 녹색주화라고 불리운다.

경복궁의 연화는 우선 입면형에서 장단 2빛의 꽃잎(강녕전의 도리, 연목, 내부 대들보와 대부분의 전각에서)과 육색 3빛의 꽃잎(경성전, 연길당 내부 대들보, 수정전, 천추전 내외부, 만춘전 내부)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위에서 기술된 것처럼 모든 꽃잎이 원래의 색인 붉은색으로만 칠해지지 않는 않았다. 연꽃의 경우에도 건춘문(파련화), 동십자각에서는 녹색의 연화가, 영추문(파련화)에서는 청색(삼청)의 연화가 나타났다.

평면형의 연화는 가운데 황색 꽃심이 있고 6개의 장단 꽃잎, 녹색 배주기가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하 기본형이라 칭함)이고, 근정문이나 홍례문과 같이 장엄한 건물에서는 가운데 녹색 연봉, 6개의 육색 꽃잎, 녹색 배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회루에서는 연화와 모양이 다른 5판 쇠코화가 사용되었으나, 배색에 있어서는 기본형을 따르고 있었다. 한편, 교태전, 강녕전과 같은 주요 전각에서는 연꽃잎에 3빛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3빛의 다자색이 지극히 미약하게 보이므로 색의 사용면적을 고려하여 기본형으로 포함시켜도 무방하리라 판단하였다.

주화는 연목, 도리, 창방 등의 부재에서 간단한 머리초를 둘 때, 연화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또 내부 우물천장의 종다리니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주화의 형태는 평면형 연화의 꽃잎을 작고 둥글게 하고, 배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황 꽃심에 4판 육색(2빛) 주화꽃잎으로 구성된 2색 배색이다. 동궁 자선당과 비현각의 내부 창방, 도리에서 곁친 주화 머리초가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원형 주화의 반머리초가 사용되었다. 곁친 부분은 삼청 2빛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둘레방식문양이나 구리대초와 같이 작은 문양이 사용되어야 하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둘레방식 문양에서는 중심에 위치하였으나, 구리대초에서는 특이하게 1/4 주화로 상부 좌우에 위치하였다. 교태전이나 자경전 등 일부에서 곁친 주화가 나타났다. 주화를 3빛으로 처리한 것은 근정문, 홍례문 등 극히 일부로 주화를 사용하는 목적이 연화보다 단순한 것임을 고려할 때 2빛이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하겠다. 즉, 주화는 일반형일 때 2색 배색으로 황-육색(2빛), 곁친형일 때 3색 배색으로 황-육색(2빛)-삼청(2빛)이었다.

그 외 매우 드물게 연생전에서 모란화가 사용되었는데, 사용색은 장단 2빛으로 연화에 준하였다. 또 경복궁에서는 유별나게 쇠코화가 많이 나타났다. 쇠코화의 형태가 단순 기하학적 형태에 변형을 시도한 것으로 경복궁의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쇠코화는 근정전 행각 창방에서 연화 대신 머리초의 주문양으로 육색 3빛이 사용되었고, 사정전의 연목초에서 낙은동 대신, 구리대초, 둘레방식에서도 주화 대신, 경회루 서까래 부리에서 연화 대신에 사용되었는데, 장단 2빛으로 연화에 준하였다. 즉, 꽃의 종류나 모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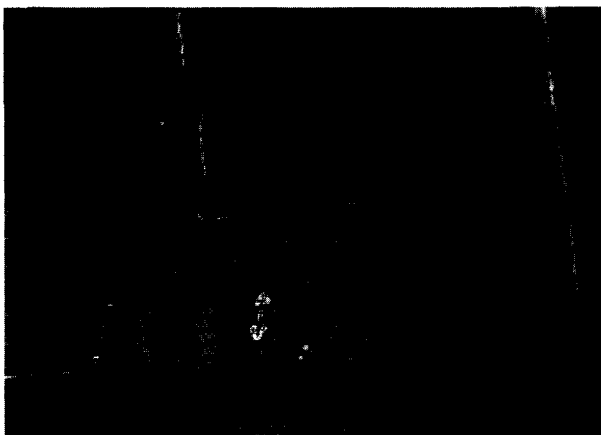
7)장기인·한석성, 단청, 보성각, 1997, p.115

조될하여 장단 2빛과 옥색 3빛이 꽃의 대표색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경회루에서 발견되는 꽃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사용색에 있어서도 예외가 많았다.

4.4. 초엽문

건축부재의 아래면(배)에 많이 사용되었던 색긋기 못지 않게 부재의 형태와 문양이 일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 초엽문이다. 화반, 양서, 수서, 운공, 보아지 등 얇은 부재의 옆면에 휘감겨진 덩굴문은 당초문 또는 인동문이라고도 불리운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부재를 내외부 모두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큰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용색이 두 개의 계열로 단순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화려한 효과는 배색에 의한 것보다 문양의 형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강녕전, 교태전, 동궁전, 건순각 등 주요전각에서는 장단 바탕에 녹색 2빛이 사용되었고<사진 9>, 그 외 일반 전각에서는 석간주 바탕에 녹색 2빛의 초엽문이 사용되었다.

초엽문은 공포와 공포 사이에 생기는 삼각형 포벽에도 사용되었다. 포벽은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달리 장식되는 것이다. 불사건축에서는 불교적 내용이 묘사되며, 때로는 문양보다 사실화가 그려지기도 하는데, 궁궐건축에서는 잎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초엽문으로 대표된다. 사용색은 토옥색 바탕에 삼청 2빛이 가장 많았다.<사진 9> 다음으로 양청 바탕에 장단 2빛, 토옥색 바탕에 녹색 2빛이 나타났다. 다른 궁궐에서는 간단하게 토옥색만으로 처리한 경우도 많아서, 다른 궁궐에 비해 경복궁의 채색이 보다 정교한 일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 9> 창방과 상부의 도리·장어 사이에 위치한 화반과 포벽에서 초엽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화반에서는 장단 바탕에 양록색의 초엽이, 포벽에서는 토옥색 바탕에 삼청색의 초엽이 주로 사용되었다(건순각).

4.5. 딱지·향아리

딱지는 녹화와 녹화 사이의 골짜기, 또는 인회에서 생기는 골짜기를 메우는 것으로 향아리와 다른 점은 분점을 찍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러나 골짜기를 메운다는 기능면에서 볼 때는 향아리가 딱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딱지는 반달, 파련화, 연화, 쇠코 모양 등 다양하다.

<표 2> 단청문양의 붉은색 표현 양상

단위문양	사 용 색		
	적색 계열	2 색계열 배색	3 색계열 배색
휘문양	옥색 2/3빛, 장단2빛, 옥색장단 2/3빛, 석간주 2빛	적(옥색2)-청(삼청2) 적(옥색2)-청(삼청2) -적(석간주2)	적(옥색2)-청(삼청2)-황(황2) 적(옥색2)-청(삼청2)-황(황2) -적(석간주2) 적(옥색2/3)-청(삼청2/3)-황(황2/3)-청(양록2/3)-적(석간주2/3)
색직휘·색긋기	옥색2빛, 옥색3빛, 장단, 장단2빛		
꽃문양	옥색 3빛, 장단 2빛	적(옥색2)-청(양록2) 적(옥색2)-황	적(장단2)-청(양록2)-황 적(옥색2)-청(삼청2)-황
초엽문		적(장단) -청(양록2) 적(석간주)-청(양록2) 적(토옥색)-청(삼청2) 적(토옥색)-청(양록2) 적(장단2)-청(양청)	
딱지·향아리	옥색 2빛	적(옥색2)-백 적(장단)-백 적(장단2)-백	* 4색계열: 적(장단)-청(양록)-황-백

단청 문양에서 골짜기가 생기는 곳은 부연초, 연목초, 둘레방식, 구리대초, 연화머리초, 인휘 등이다. 형태적으로는 이러한 딱지와 향아리들로 인하여 문양이 등그린 형태에 가까워지고, 효과면에서는 흰색 민주점으로 인해 화사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경복궁에서는 쇠코형 딱지가 주로 사용되었고 붉은색 계열로는 옥색 2빛이 나타났다. 분점을 찍는 향아리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삼색 향아리(녹-황-장단), 장단 2빛 향아리, 장단 향아리, 그리고 옥색 2빛 쇠코향아리이다.

5. 종합 및 결론

한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색채에 대한 사용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근본적인 색채의식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되며, 한민족을 대표하는 색으로서 붉은색을 선정하였고, 붉은색이 잘 표현되고 있는 궁궐건축-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을 대상으로 색채특성을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구성요소에 나타난 붉은색의 표현 특성을 보면 우선 많은 부분-합각, 기둥, 인방, 창틀, 벽선, 대문, 계단, 난간 등-에 있어서 석간주라는 붉은색이 사용되었고, 넓은 벽면에는 토옥색이라는 조금 밝은 붉은색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건축물에 입체적인 붉은색의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또한 골뚝과 합각, 담 부분에서는 주황색 전들을 사용하였는데 색감이 장단색과 유사하여 건축 부재에 채색된 석간주보다 밝은 이미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전들은 흰색의 모르타르와 더불어 아름다운 문양

을 형성하였고, 이때 흰색의 모르타르로 인하여 더욱 화사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런데 문양을 표현할 때 검은 전돌을 사용하여 적-백-흑의 3색 배색이 나타나기도 했다.

건축 수평구조 부재나 난간, 창호와 같은 곳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계열의 배색이 지배적이었다. 사용된 붉은색은 석간주, 장단, 옥색이었고, 이것과 연결되는 푸른색 계열의 색은 각각 뇌록, 양록, 양청이었는데, 전각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의 기능에 따라 적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창호의 경우 하얀 창호지로 인하여 적-청-백의 3색 배색 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면적의 비례로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용색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시각적으로 인지되어 추가한다면 검은색 철물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대문과 난간, 기둥, 합각 등에서 철물을 사용하여 구조를 보강하고자 할 때 사용한 철물의 색은 모두 검은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석간주와 철물의 적-흑 2색 배색도 전통 배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경복궁의 단청 문양은 연화머리초, 주화머리초, 둘레방석, 구리대초와 같은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내는 기본 단위-주화, 연화, 곱쟁이, 향아리, 휘 등-들을 중심으로 사용색을 분석하였다. 단청 문양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머리초를 구성하는 꽃문양과 휘문양이라고 볼 수 있다. 꽃문양은 주위에 향아리와 딱지가 있고, 전체 머리초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색직휘가 있고 마감되는 부분에는 색실이 있는데, 꽃문양, 휘문양, 향아리, 색직휘, 색실에서 붉은색이 뚜렷이 나타났다.

문양에 사용된 색들은 기본적으로 2빛이나 3빛으로 사용되었고 꽃문양과 향아리, 딱지의 경우 옥색과 장단이, 휘문양에서는 옥색이 대부분이었다. 색직휘의 경우 장단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경복궁의 단청문양에서는 많은 부분에 붉은색 계열의 중에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옥색과 선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장단이 주로 중요한 문양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방과 장여·보와 같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재 뿐만 아니라, 공포의 첨차·수서·양서, 처마의 부연, 장식적인 낙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재의 배에는 옥색 3휘의 색긋기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운공이나 대공, 포벽 등의 초엽문에서는 장단-양록, 석간주-양록, 토옥색-삼청, 토옥색-양록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2색 배색이 많이 나타났다. 이 적-청 배색은 공간 구성 요소에서도 주요 배색 특성을 보여주었던 것으로 전통 배색의 기본이 적-청 배색임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경복궁의 건축 부재에서는 석간주, 토옥색이 주요색으로 사용된 반면, 단청 문양에서는 옥색과 장단이 주로 사용됨으로써 건물 전체에 사용된 붉은색에 비하여 문양에 사용된 붉은색이 보다 밝고 선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붉은색 계열의 색들이 많은 부분에 적용된 것이 전통 색채 디자인의 뚜렷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2색계열 배색으로 표현된 경우, 전체적으로 건축에서나 단청 문양에서나 적-청 계열(녹색계열과 청색계열을 포함한 개념)의 배색이 절대적으로 나타났다. 단, 건축공간에서 보다 단청문양에서 녹색보다는 청색의 배색 비율이 높았다. 적-청의 2색계열 배색 다음으로 특징적인 배색은 적-백의 배색으로 여기서 사용된 붉은색은 주황(건축에서는 전돌, 단청에서는 장단)과 가까운 데 흰색의 영향으로 보다 밝게 보였다.

3색계열 배색의 경우 건축공간에서는 상부 합각에서 적-백-흑이, 창호·벽체 입면에서 적-청-백의 배색이 특징적인 반면, 문양에서는 적-청-황 3색의 대비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 건축공간보다는 작은 단위 문양의 배색에서 보다 강한 배색이 사용되었다.

이와같은 색채 특성은 좁게는 19세기말의 경복궁의 색채요, 넓게는 한국 전통 배색의 뚜렷한 한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 침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998
2. 단청모사집, 한국문화재보존 기술진흥협회, 1991
3. 대원고건축연구소 편찬, 경복궁 근정문 수리보고서, 문화재청, 2001
4. 대원고건축연구소 편찬, 경복궁 동궁지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0
5. 대원고건축연구소 편찬, 경복궁 침전지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0
6. 대원고건축연구소 편찬, 경복궁 흥례문권역 중건공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1
7. 문화재관리국, 경복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8.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교육, 문화재청, 2001
9. 예용해, 단청, [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73
10. 우리건축사사무소 조사편찬, 경희루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 보고서, 2000
11. 이장근, 경복궁, 대원사, 2000
12. 장기인, 목조-한국건축대계 V, 보성각, 1998
13. 장기인, 한국건축사전-한국건축대계 IV, 보성각, 1998
14. 장기인·한석성, 단청-한국건축대계 III, 보성각, 1997
15. 정유나, 조선시대 궁궐건축의 건축채색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92
17. 한국의 고궁1. 경복궁/ 고궁2. 창덕궁/ 고궁3. 창경궁/ 고궁4. 덕수궁/ 고궁5. 종묘, 열화당, 1996
18. 홍대형, 한국의 건축 문화재, 기문당, 2001
19. www.k-palace.pe.kr

<접수 : 2002. 8. 30>